아-하하하!
화
악
선생님이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는데 또
지각이구나?
부
웅
으...
오.. 오늘도
자명종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야..
잠깐....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너도
보나 마나 지각일 거 아니야?!
하하!
글쎄 과연
.....
화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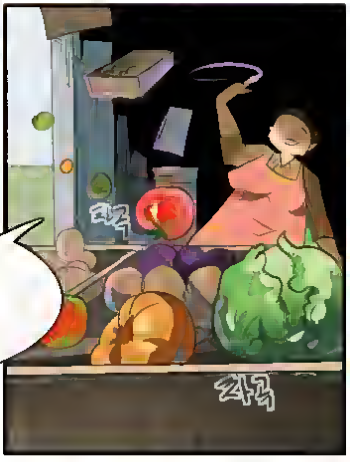
그럴까?!!
어..?!!

학교 먼저 도착한
사람 소원들어주기~!
야,야 치사하게
그런게 어딨어?!!
갈
이가!..

오~
안녕하세요 이바멜씨.
에, 안녕히주무 셨어요?

끼엥

어제 사고 치신 건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호호
덜썩
덜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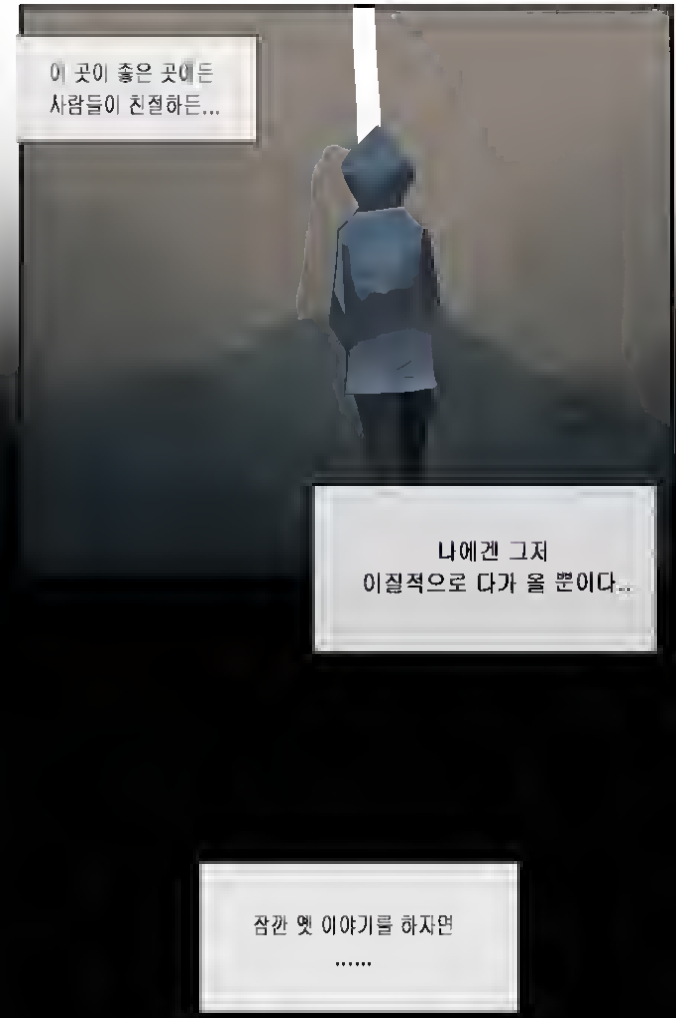

세상에 대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와르
와르

그 집 간판까지
떼 오신 거예요?
BEAR
허허..
아..이거 좀
부끄럽고만..

하하 말도 마세요
저것 때문에 마누라한테 잡히는
모든 집안 살림으로 오늘 아침까지
얻어맞았다니까요
그 덕에 지금...
터벅
터벅
좋은 곳이군...

아이들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학교에 가고,
이웃 간에는 서로의 실수도
허물없이 터놓을 정도로
친근하고 따뜻해보여.
음?
아니..잠깐..
저, 저거 !!!

악마다, 저주받은 악마!!!
퍽
악
죽음을 몰고다니는
사악한 영혼 !!!!
이...아침댓바람부터
재수없게 !!!
어머머 ..!!
카악-퉤 !!! 저 저주
스러운 것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또 어디서 사고가
터진 게 분명해..!!
이바엘씨 빨리
소금 뿌려 소금 !!!
맞 난 매번 이렇지..



잠깐 옛 이야기를 하자면
.....

이천 년 전 선조들이 이 대륙에
"라테시아"를
건국한 후 이래로, 그들은 마나와 무한한 기술력으로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몬스터들로부터 마을을 지켜나가며 문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갔다

그렇게 점차
마을들은 안정을
찾아가며 발전을 거듭해
한 국가로까지
성장을 거듭했고
.....

마침내
라테시아 대륙엔 총 일곱국가가
설립 됐으며 무려 이천 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별다른 큰 전쟁이나 문제 한번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영위해나갔다.....

그렇다고 물론 아예 사건 사고가
없던 건 아니지만 대륙이 워낙 넓은 탓에
뭔만한 일들로는 티조차 남기지 못하고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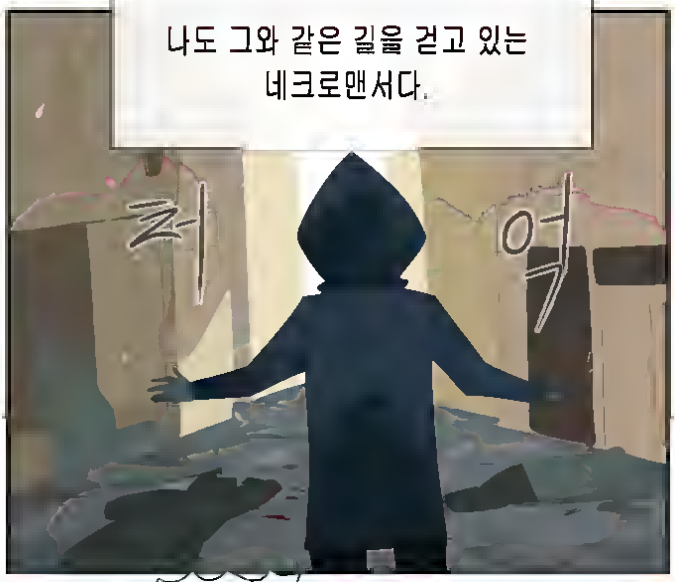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년전...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대륙의
평화는...
단 한사람
.....

'로즈 세브'
라 불리던 한
미치광이
마법사로 인해
그 역사는
깨지게 된다.
우
아
아
아아
그가 이끄는 죽음의 군단은
총 일곱 국가의 병력을 합친
수를 훨씬 웃돌았으며
로즈세브가 부리던 흑마법은
가히 금지마법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라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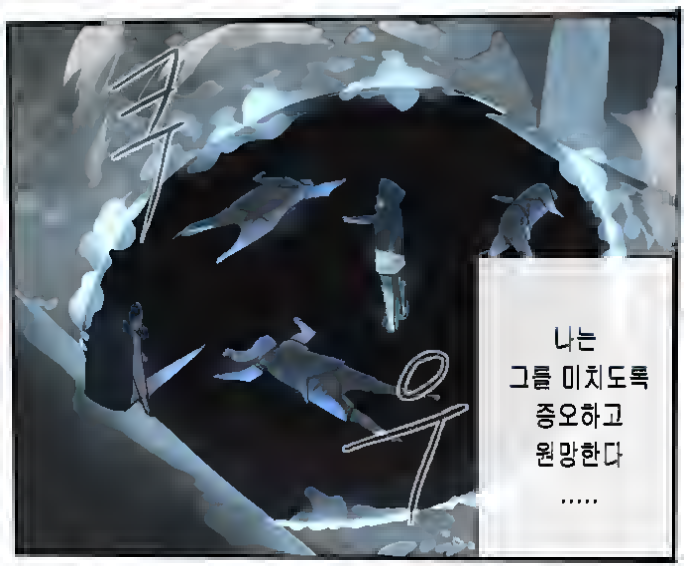
그렇게 그는 대륙
역사상 유례없던 큰 피해를 남기고
당당히 대륙 '최고 최악의 마법사'로
자리 매겨지게 되었다.

그는 바로 네크로맨서 였고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네크로맨서다.



저 뒤쪽은 더하니까 서둘러서 처리하고, 그쪽도 마저 해결해
알겠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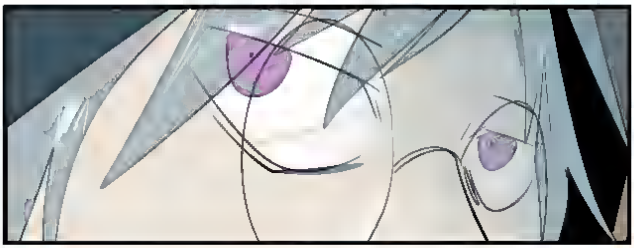

나는
그를 미치도록
증오하고
원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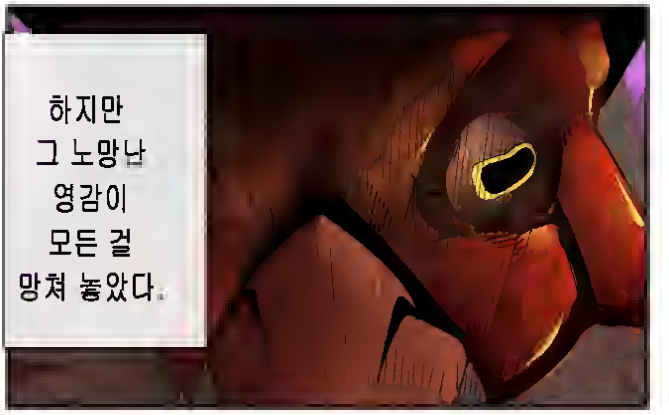
물론 대단한
네크로맨서 라고
인정은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피를
갈망하던
미친 노인네로
밖에 안보인다.
지금의 난
.....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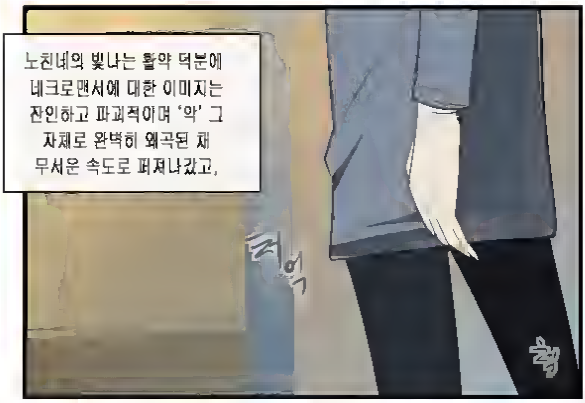
'시체 청소부'일
뿐이니까.

그의 직업이었던
네크로맨서에
대한 평가는
당연
최악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말
할것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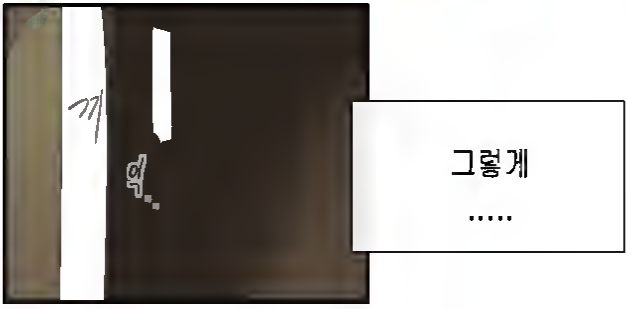
본래의
네크로맨서 라면
절대 시끄러
운 일에 말려
드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저 죽음을
관장하고 지켜보며
떠도는 영혼들의
길을
바로잡아주는
길잡이 일 뿐
.....
주로 시체나 혼을
다루는 직업상
다소 음침하고
회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저 자신들
만의 연구를 즐기는
다른 마법사들과
별반 다를게 없다
전쟁, 학살, 방화
파괴 같은
그런 요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하지만
그 노망난
영감이
모든 걸
망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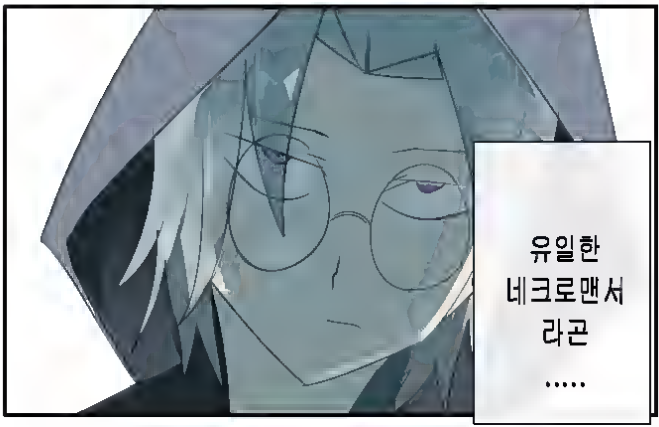

노친네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네크로맨서에 대한 이미지는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악' 그
자체로 완벽히 왜곡된 채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터억
쿵

한번
뒤틀리기 시작한
그 균열은
메꿔지기는커녕
점차 벌어지고
확대되어
결국 그들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
스윽
그렇지 않아도
수가 많지
않았던 네크로
맨서들은 점차
하나둘씩
지취를 감쳐
나갔다
....


끼익..
그렇게
.....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
....

끼
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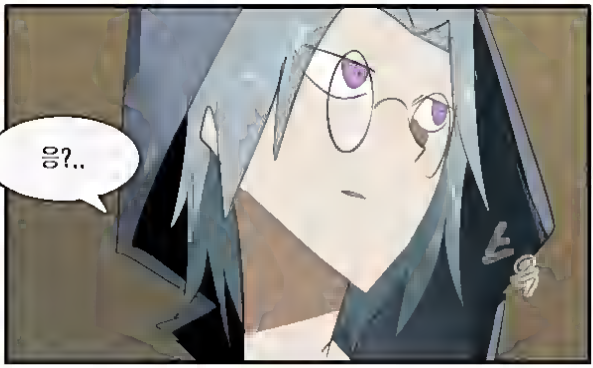
유일한
네크로맨서
라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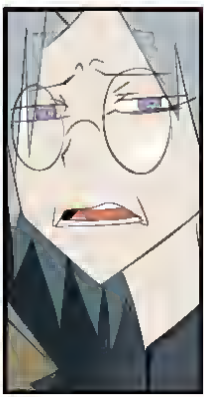
나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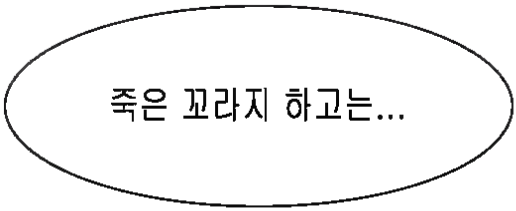
허....

여긴 더 심하네..
무슨 패싸움이라도 했나
왜 이리 난장판이야?

빨리
처리하고
집에나
가야지..
도중에 끊긴
연구를 마저
하려면 어서


응?..





이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